

광주여대 언어치료학과 학생들 4개월째 봉사활동

다문화가정 아동 우리말 가르치는 '천사'

"피부색이 다르다는 소외감, 말...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와 소통하

주어다 어등관 1층 언어치료센터. 11명의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이 각 1명씩 데리고 언어치료를 하고 있었다.

언어 뒤떨어진 아이들 1 대 1 교육 "취업 준비에 힘들지만 보람 커요"

는 데 더 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우리 말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가 필리핀인 탓에 다른 한국 애들보다 언어발달이 뒤떨어진 신우는 4개월째 교육을 받으면서 또래의 수준에 가까워졌다.



13일 광주여대 언어치료학과 인턴생 학생이 교육원구를 갖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를 가르치고 있다.

니 언어치료가 효과가 있을 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네 살 밖에 준호에게 배우기도 한다.

학생들의 바람은 한결 같았다. 언어치료학과 나원영(4학년)씨는 "이제 다문화가정도 어엿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차별의 시선이 아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부에 달려있다"면서 "학교 교육 목표중 하나인 인성교육을 위해 다문화가정 아동 언어치료 봉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남대 로스쿨 유급제도 도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유급제를 도입해 학사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대는 13일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에 따라 교학규정을 제정, 유급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학규정 제9장 제27조(유급), 제28조(유급의 기준)에 따르면 유급 대상은 법학전문석사 1학년 과정 이수자이며 교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2.5 미만이거나 지정 필수과목의 성적 중 두 과목 이상 F등급을 받으면 유급이 적용된다.

대상자들은 1학년 말에 교수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최종 결정하며, 유급자들은 1학년 때 취득한 학점이 전부 무효처리된다. 또 출석시간 수가 총 수업 시간 수의 4분의 3에 미달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전체 신입생의 절반 이상이 비법학계열 전공자임을 고려한 제도이기도 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나원침 (7752) 김장두



'학생 하루 10분 걸기' 전남 전 학교로 확대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이 초·중·고 각급 학교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신체활동 감소 등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비만학생 해소 등을 위해 학교 체육 프로그램 강화와 그에 맞춘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학교체육 프로그램으로 지난해부터 추진, 큰 호응을 얻은 '하루 10분 이상 건강걸기 생활화'를 전 학교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각급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교 스포츠클럽'도 내실화를 기하고 스포츠강사 80여 명을 일선 초등학교에 배치해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등 인적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생들의 건강 정도를 평가하는 '학생건강 체력평가(PAPS)'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종 측정장비 등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25개교에 그쳤던 학교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은 올해 50개교로 대폭 늘려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특수매트 등을 사용한 전천후 다목적 구장 설치,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근린체육시설 확충,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등이다.

유남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이번 학생 건강 체력 증진 사업은 그동안 특정, 소수 학생에게만 집중됐던 엘리트 체육의 틀을 벗어난 일반 학생의 건강 지키기, 지역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영광수협조합장 선거 금품 수수 의혹 수사

경찰, 조합원 계좌 추적

최근 영광군 수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치러진 영광군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와 일부 조합원들의 계좌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을 지지하는 대가로 조합원들에게 수십만원의 돈을 줬으며 조합원 중 일부는 돈을 돌려주기도 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올해 전남지방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불·탈법 행위 16건(32명)에 대한 수사 및 내사를 진행 중이다. /최경호기자 choice

화순군수 친인척 비리 본격 수사

친형 전모씨 구속·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전완준 화순군수의 친인척인 전모(66)씨를 구속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화순군수의 친인척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화순군 인사와 공사계약

등에 개입해 돈을 받은 전씨를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7년 1월 화순군의 남골당 인·허가와 관련해 군청에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2천만원 받고, 지난해 4월에는 군청 공무원 특별채용을 대가로 2천만원을 받

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전남 전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한편, 전씨가 살고 있는 광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화순군수의 친인척 비리의혹을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전씨의 자택은 지난 1월에 군청 인사에 개입해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일 자리를 주세요' 13일 오후 광주시 북구 두암주공 4단지 내에 (사)주거복지연대 광주북구광역생활복지센터 일자리 창출 작업장이 문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근 실업난을 반영하듯 300여명의 구직자가 몰리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에이즈 택시기사' 무차별 성관계

충북 제천시 6년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가 6년여간 충북 제천지역에서 여성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충북 제천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검거된 여성 숙주 절도범 전모(27)씨는 2003년 군 신병훈련소에서 에이즈 환자로 관명돼 의사가 제대한 뒤 질병관리본부의 정밀진단을 거쳐 에이즈 환자로 등록됐다. 이때부터 제천 지역에서 택시기사 일을 시작한 전

씨는 단란주점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들과 술에 취한 택시 승객 등 수심명과 성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검거 당일 아침 전씨의 제천시 청전동 원룸을 급습한 경찰은 400여장의 여성 숙주, 여성 10여명과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휴대전화 영상파일을 압수했다. 전씨는 택시기사로 일하며 술에 취한 여성승객 등을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갖고 이를 촬영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광주경찰청 차장 나옥주씨 전남경찰청 차장 김중명씨 경무관급 38명 인사

정부는 13일 광주지방경찰청 차장에 나옥주 인천지방경찰청 차장을, 전남지방경찰청 차장에 김중명 경찰 수사연수원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경무관급 3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나 차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환일고와 강남대를 졸업하고 1982년 간부후보 30기로 경찰에 입문했으며, 순천경찰서장과 안양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학력평가 중 외출한 고3 목매 숨져

지난 11일 오후 6시경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시내 모 고등학교 3학년 김모(18)군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13일 뒤늦게 알려졌다.

김군은 2m 높이의 방 출입문틀에 전선으로 목을 매 숨져 있었으며, 유서는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은 숨진 당일 오전 등교해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합학력평가 1, 2교시 시험을 본 뒤 담임교사로부터 외출증을 끊어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성적이 중상위권인 김군이 이날 1, 2교시 시험을 마친 뒤 점심시간이 되자 '환경의 초점이 안맞아 안경점에 다녀와야겠다'고

해 외출증을 끊어줬다"며 "점심 후 남은 3, 4교시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변이 생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군이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었다"는 유족들의 진술과 시험 및 학업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kwangju.co.kr

"운전 방해" 오토바이족 남치 폭행

○"운전을 방해한다"며 오토바이이족 3명을 산으로 남치해 폭행한 20대 5명이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13일 유모(19)군 등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3명을 2시간 가량 끌고다니며 주먹을 휘두른 김모(20)씨 등 5명을 폭력 등의 혐의로 불감하 조차중.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일 새벽 1시경 광주시 북구 중흥동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가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길을 막는다"며 유군 등을 무당산 전망대 인근 도로로 끌고 가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

○김씨 등은 경찰에서 "예전에 오토바이이족으로부터 차량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를 본적이 있는데, 오토바이가 운전자를 방해하자 순간 화가 났다"며 진술을 호소.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Weather forecast section including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with a map of Korea, temperature ranges for various regions, and a 7-day forecast table.